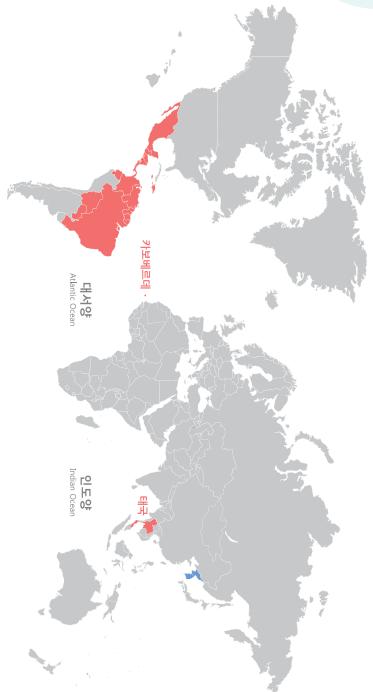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현황 (2016. 2. 2 기준)



* 최신 발생국가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travelinfo.cdc.go.kr) 게시

www.cdc.go.kr

ZIKA VIRUS DISEASE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모기(아집트숲모기·원줄숲모기 등) 노출을 최소화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 진료를 받으세요

See your healthcare provider if you develop any symptoms including fever, rash, joint pain and red eye within two weeks after visiting countries where Zika virus was recently repor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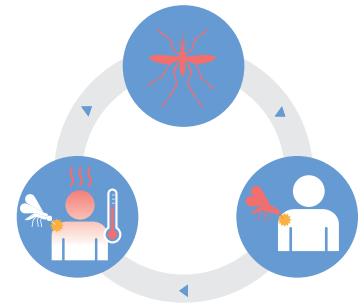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09) 또는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란?

-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
-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 증상



- 모기에 물린 후 2~14일이 지나서 증상 시작
-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2~7일 정도 지속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예방수칙

| 일반 대상자 |



-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미리 숙지하여 준수



방충망이 설치된
숙소 이용

잠잘 때는
모기장 사용



모기 기피제
사용



모기 살충제
사용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림

| 임신부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발생 국가로의 여행 연기 권고

-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 의료진 상담

- 여행한 경우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림



- 산전 진찰 받던 병의원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 모니터링



| 증상 및 감염경로 |

모기에 안 물려도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나요?

- 지카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 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아 환자 격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는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나요?

- 현재로서는 유행 국가에 여행할 경우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매개모기 감시 결과 지카바이러스 감염 모기는 검출된 바 없고, 국내 감염 사례 및 해외 유입 사례 보고도 없습니다.

발생국가를 다녀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행에서 돌아와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 시 해외여행력을 꼭 이야기해주시고,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유발되는 다른 질병은 없나요? (임신부 또는 일반인의 경우)

- 지카바이러스 감염시, 일반적으로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며,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두증, 길랑바레 증후군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종 연구결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 접촉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성 접촉(성관계)으로 전파 가능하나,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영국 보건부는 남성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에서 돌아온 후 1개월간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남성이 확진 받은 경우 완치 후 6개월간 피임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걸린 남성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태아에게서 소두증이 일어날 수 있나요?

- 환자와의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성적 접촉을 통한 전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임신부가 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단검사 관련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여행 후, 귀국했는데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진단법 관련)

- 우선 가까운 병의원의 의사 진료를 받으신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감염되었을지 걱정이 되는데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행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방 및 치료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있으나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수면 시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부인데 나와 태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여행 전 의사 상담을 받고 여행국에서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기 기피제가 임신부에게도 안전한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모기 기피제의 경우 임신부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별로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카바이러스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대부분 회복되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열제, 진통제 등의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